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4.0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4.0은 제4의 물결이 도래하는 가운데 한류 4.0과 정보통신 4세대(G)가 창조적으로 결합하여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실현하자는 대한민국의 문화창조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 2013 크리에이티브 메시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을 이끄는 **협회장 10인**이 새 정부에 바란다! 장르별 협회장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본다.



게임 Game /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남경필



▼ 2013년 사업계획

국민들로부터, 국내외 네티즌들로부터 사랑 받는 게임산업을 만들고, 자율과 글로벌 성장에 주안점을 맞춰 변화의 노력을 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객관적 심의 기준과 공정한 절차로 신뢰 받을 수 있는 민간 자율 심의 기구의 출범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게임사들이 많은 수출 성과를 일궈낼 수 있도록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 해외 바이어 유치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게임전시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새 정부 최고의 화두는 창조산업입니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수반될 때 달성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현행 규제 중 과잉이거나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실효성을 검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국내 게임들이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게임의 긍정적 역할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많은 진흥책 마련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2013년 사업계획

방송사와 외주 드라마제작사가 콘텐츠 창작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권리를 부여받고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드라마 제작환경을 저해하는 불량 제작사를 선별할 수 있는 '제작사 등록제'와 '페널티 제도' 도입 등의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드라마 산업계의 자정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 나가려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새 정부에 바라는 점

2013년 전체 드라마 시장에서 외주 드라마제작사가 제작한 드라마가 80%에 이르지만, 편성권을 가진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 사이에는 여전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직 구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시작인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창작에 기여한 만큼 이익이 배분되어 더 좋은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개발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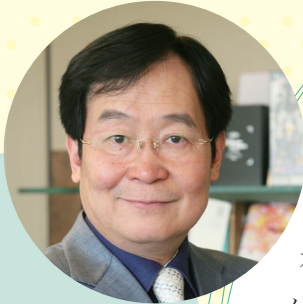


방송 Broadcasting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장 박창식

▼ 2013년 사업계획

첫째, 원작 만화의 원소스멀티유즈화를 위한 타 장르로의 융합형 콘텐츠 창작개발입니다. <안녕 자두야>, <열혈강호>의 원소스멀티유즈 성공사례를 발판으로 창작단계에서 타 장르와 공동개발을 통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융합형 콘텐츠 창작개발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둘째, 만화 전문잡지 연재 제작 및 온라인 저작권 보호 활동입니다. 만화 전문잡지 연재 제작으로 창작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확대로 만화 저작권 보호 활동과 발전기반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만화 Cartoon /

한국만화출판협회장 황경태

▼ 새 정부에 바라는 점

먼저, 글로벌 만화콘텐츠 창작지원 활성화(K-comics의 글로벌화 전략)입니다. 오프라인 만화시장은 축소되었지만, 디지털유통을 통한 해외진출이 용이해졌습니다. 유통환경의 다각화와 다양한 만화의 창작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선진 해외만화업체와의 공동개발 지원 활성화입니다. 선진 해외만화업체와의 공동개발이나 유명작가의 영입을 통해 노하우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바라며, 만화한류의 성공사례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 2013년 사업계획

애니메이션진흥법 제정 추진 예정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콘텐츠 자체만으로도 어린이·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장르이고 그 외에 산업적으로 캐릭터, 완구,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타 문화콘텐츠 장르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장르입니다. 언제나 창조경제 견인에 중요한 장르로 인식되고 언급되고 있으나 타 문화콘텐츠 장르와 달리 전문 진흥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데 부침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Animation /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장 김영두

▼ 새 정부에 바라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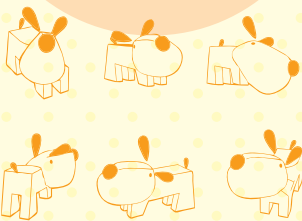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부터 아동·가족용 콘텐츠의 제작지원 확대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동·가족용 콘텐츠를 산업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어린이·아동이 갖춰야 할 문화정체성 확립, 행복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문화복지 등 정책적 이념을 먼저 확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콘텐츠, 특히 어린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르는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캐릭터 Character /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선싱협회장
조태봉



▼ 2013년 사업계획

내적으로 창작자 및 콘텐츠 기업의 권리보호, 외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불법복제 단속 및 계도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 콘텐츠 유통시장의 환경 개선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관련 라이선싱 체계 연구를 진행하고, 콘텐츠 분야의 회원사 유치를 통한 이업종 회원 상호 간의 네트워크 비즈니스 생성 및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지원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정부 지원사업의 방향을 창조적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체제로 바꾸고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정부 중심의 정책 수립이 아닌 민관학연 합동의 정책수립체제 구축과 정책실행에 대한 사후 평가체제를 확립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개인 창작자 및 영세 콘텐츠 소기업의 자립을 위해 경영, 금융, 법제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확보해 주길 바라며 지속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강화의 방안도 구비해주었으면 합니다.

▼ 2013년 사업계획

음원저작권 정산 방식 표준화 모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 사업자간 정산 방식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저작권 분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인음악차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SBS, MBC) 음악방송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차트 데이터를 통한 음악산업 통계 데이터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음악산업의 양극화 해소가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음악업계 중산층의 복원을 통하여 유효한 경쟁과 일자리 창출에 힘써 주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단순한 구조의 펀드 조성, 가능성 평가에 따른 패자부활자금 지원, 대형기획사 소속이 아닌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원 가격 정상화를 위한 유통 가이드 제시 및 정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룰을 정립해야 합니다. 가격질서 정립, OSP 별로 상이한 정산 방법에 대한 표준화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룰 세팅을 위한 업계의 합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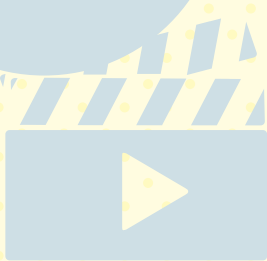
음악 Music /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장 방건



영상 Movie /

한국영상산업협회장 박양우



▼ 2013년 사업계획

2012년 한국영화는 관람객수가 전년 대비 21.9%가 증가하여 1억 9천명을 넘었으며, 한국영화점유율도 58.8%로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2013년에도 한국영화의 약진은 계속 되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한국영상산업협회는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한국영화의 국내외 배급과 영화 불법 다운로드의 감시 및 저작권보호, 나아가 영화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가교역할을 통해 한국영화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영화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근간이며, 대표적인 종합예술산업이라 할 수 있고, 우리 영화인들은 영화를 통하여 세상과 소통하며 그 시대를 반영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권리자의 이익과 권한을 침해하는 후진국형 법률이 존재하고 있어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의 창작의욕과 산업을 위축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을 과감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2013년 사업계획

서울국제도서전(6.19~23) 개최와 도쿄국제도서전(7.3~6)에서의 주제국관 운영 등입니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주빈국 인도 외에 캐나다가 걸쳐 포커스로 참여하며, 출현은 '조선 활자 책 특별전', '저자와의 대화', '인문학 아카데미' 등 책·사람·문화가 어우러진 책 관련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쿄국제도서전에서의 성공적인 주제국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출판은 지식기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콘텐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출판정책은 여타 문화산업 분야에 비해 현저히 저조했습니다. 새 정부의 출판산업에 관한 인식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 개발을 요구합니다. 또한 도서정가제 확립, 출판진흥기금 조성, 군부대의 병영도서관 장서 확충 등 미디어 문화산업의 원천 콘텐츠인 출판을 탄실하게 세우기 위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출판 Publication /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윤형두



▼ 2013년 사업계획

서울뮤지컬마켓은 2012년에 개최된 서울뮤지컬페스티벌에 올해(2013) 신설된 주력사업입니다.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의 제작자, 공연장 예술감독 등을 초청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마켓을 형성하고 향후 법제계적 유통망 구축을 통해 전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을 공략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뮤지컬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신진 창작자들을 소개하고, 개발단계의 작품들을 선보여 해외 진출 및 투자, 공동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인프라로서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시장을 주도하는 한국뮤지컬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뮤지컬 Musical /
한국뮤지컬협회이사장 설도윤

▼ 새 정부에 바라는 점

뮤지컬을 산업으로 인정하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뮤지컬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대중종합예술인데 반해 한국뮤지컬산업만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연극의 하위 파생 장르로 인식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민간차원으로 한국뮤지컬시장은 이미 산업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자생력은 한계가 있기에 국가 차원의 육성책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한국뮤지컬산업이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미래의 국가 대표 문화산업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2013년 사업계획

스마트러닝 산업지원센터를 통한 스마트러닝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러닝(콘텐츠)과 로봇(하드웨어)의 상생 및 융합을 통한 신규 사업도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닝 코리아(국제 박람회/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 해외 주요 바이어 초청 및 국내 기업과 1:1 비즈매칭 주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러닝 E-learning /
한국이러닝산업협회장 이형세

▼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이러닝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입니다.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 규정 마련과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처리방법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DB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러닝 표준계약서 고시입니다. 표준계약서 고시에 따라 콘텐츠 제작업체와 발주처간 분쟁 감소를 위해 이러닝 콘텐츠 제작 발주에 관한 표준계약서 고시 및 활용 홍보가 필요합니다.

